

월/요/광/장

이원일



지난 14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막된 제 4회 프라하 비엔날레에 광주출신 작가 강운과 함께 다녀왔다. 이번 비엔날레 행사에 공동큐레이터로 임명된 필자는 한국작가 10명의 출품작 30여점을 선보였다.

물론 다른 9명의 한국작가들의 작품들이 선전하는 모습도 기쁜 일이었지만, 필자와 10여 년을 교류해오며 함께 예술적 성장을 이루어온 화순출신의 한 작가를 세계무대의 한복판에 세우고 말라잡지 필

프라하의 봄, 광주의 봄

어진 곳에서 그의 '수줍은' 연기를 지켜보는 필자의 심정을 작가들이 얼마나 헤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가 한국작가와 광주작가를 지속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시키고 있는 이 지난한 여정은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도 아니다. 문득 그녀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프라하 출신 체코인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리에게 익숙한 20세기 영화의 제목과 같은 '프라하의 봄'이 '광주의 봄'과 조우하는 순간을 목격할 셈이다. 개막 후 사흘째 가 되는 날 필자는 전시장에 남아 행정적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강운 일행은 중세

래의 전시팀장이라는 소중한 직책을 통해 국제적 실무경험을 학습했고, 광주작가들과 함께 국제미술계에서 성장해 왔다는 고마움에 대한 작은 보답과 신의, 그리고 그들과 세계무대에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 싶은 소망이 전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강운의 출품작품 '유어공'은 프라하의 5월 행사에 어울리는 봄기운이 완연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 작품은 한지를 겹겹이 밀착시켜 종이라는 물질을 넘어선 시간의 컷들이 축적된 공간 위에 꽃잎이 흐드러지게 펼쳐진 감성적 공간을 연출한 화면이다.

와 르네상스양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체코의 전통마을 체스카 그루볼로프를 향해 떠났다. 체코출신 작곡가 드보르작과 쌍벽을 이루는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의 영감의 원천이 된 몰다우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전통마을 유적지를 여행하며 출발한 작가가 일행을 배웅하며 필자는 또다시 남다른 개인적 감회에 젖었다.

10여 년 전 필자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할 당시 화순 동복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던 기억, 그리고 그를 곧바로 성곡미술관의 '내일의 작가' 개인전 프로젝트로 초대하여 서울의 도시인들에게 '화순의 밤하늘'을 선보였던 기억, 그 이후 그가 광주비엔날레를 시점으로 홍풍 등지의 아시아 무대에 진출하기까지 등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프라하로 떠나기 며칠 전 광주 도심으로 옮긴 그의 작업실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가 수줍게 웃으며 던진 말을 기억해 보았다. "전 아직까지 춘봄인데요, 필"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강선생, 세계적 친분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프라하의 봄과 광주의 봄이 만난 곳에서 이제 세계적 친분이 되기 시작한 그의 뒷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프라하의 5월이다. <스위스 BSI 재단 큐레이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바보 노무현'이 남긴 숙제와 교훈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렬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옛 전남도청을 비롯해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에 추모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급작스런 서거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과 도전이 눈물만 흘리고 만큼 녹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서거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많은 숙제와 교훈을 남겼다. '정치인 노무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화두 가운데는 언젠가는 실현돼야 할 숙제가 있다. 권위주의 청산과 지역주의 타파, 남북화해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최대화두는 지역주의 타파였다. 그의 정치역정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의 극복 없이는 국민 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정치의 '아킬레스건'인 지역주의는 앞으로 반드시 치유해야 할 숙제이다.

고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강력히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역시 아직 미완이다. 후임정부 들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문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해 10·4 선언 함의를 이끌어 낸 그의 남북화해협력 정신 역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과업이다.

이 밖에 권위주의 청산, 투명한 정치 문화 정착 등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U대회 유치... 꼼꼼한 준비로 '성공신화'를

마침내 광주가 해냈다. 광주시가 한국 시각으로 24일 새벽 3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 투표에서 캐나다 에드먼턴, 대만 타이베이를 따돌리고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는 무주(97년 동계U대회), 대구(2003년 하계 U대회)에 이어 국내에서 U대회를 유치한 3번째 도시가 됐다. 오는 2015년 대회 개최까지 남은 6년여의 기간 동안 치밀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대회개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대회의 성공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안정적인 U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가 정경환 후보들을 물리치고 U대회 개최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준비와 정부의 지원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합작품의 결과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5월 말 2013 U대회 유치 실패 이후 재도전에 나선 끝에 얻은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이번 2015 U대회를 통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

는 전기를 마련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스포츠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하계U대회를 개최했던 대구는 지하철 화재 참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광주시가 U대회의 성공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오는 2015년 대회 개최까지 남은 6년여의 기간 동안 치밀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대회개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대회의 성공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안정적인 U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7개 종목의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의 스포츠 시설정비, 호텔·선수촌 등 숙박시설 구축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U대회를 향한 광주시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법조칼럼

김재호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거의 매일 '사기(詐欺)'라는 말을 접한다. '사기'는 '속일사(詐)'와 '속일기(欺)'로, 속이는 것을 여러 번 거듭함을 의미하며, 남으로 하여금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대민족의 생활규범인 탈무드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이미 산 물건이 비록 나쁘다고 해도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구와 결혼한 배우자가 똥짓한 경우라도 "굉장한 미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거짓말은 모두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

고 했다. 우리의 형사소송절차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라는 2대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념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절차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은 연방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에 대해 허위진술 죄로 처벌하고, 프랑스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위증죄로 처벌하며, 독일은 참고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한다.

사법절차의 원활한 운영은 범죄로부터 사회가 편안하게 존속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한 국민 개인의 참여와 노력은 국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률적 책무로 인식되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제정된 이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온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는 소홀하여 왔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 제출이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 형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의 진실은 관련 당사자와 목격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객관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참고인들이 허위로 진술 내지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이

하물며 한 평 안팎인 손바닥 만한 구급차 내부는 어떻게, 워낙 밀폐도 잘 돼있기 때문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더욱 청결해야 한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신 어머님을 며칠 후 시골로 모시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급차 안에서 케케한 냄새가 많이 났고 곳곳에 적잖은 피자국도 보여 너무나 불쾌했다. 질병을 앓은 사람은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 구급차 내부가 더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 병을 고치는 병원에서 오히려 세균에 감염돼 질병을 얻는 사람들을 적잖게 본다. 하물며 한 평 안팎인 손바닥 만한 구급차 내부는 어떻게, 워낙 밀폐도 잘 돼있기 때문

에 환기나 실내 소독, 청소 같은 건 어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구급차 안에는 숨 쉬는데 도움이 되는 산소호흡기나 기타 여러 장비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역시 얼마나 잘 소독이 돼서 사용이 되는지도 궁금하다. 병원의 앰블런스나 일반 사설 구급차 모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질병이 전파되지 않게 항상 소독과 청결을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기고

송재빈



얼마 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자신의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 학생은 인터넷 동영상 보고 독학으로 평소 연습했던 경험을 토대로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마다 식생활의 습관, 인적, 물적, 의료환경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응급처치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심폐소

능했지만 사망한 응급환자의 비율은 32.6%로 선진국의 10~20%에 비해 높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정부차원의 전 국민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공무원 전체가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점차 일반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시설 및 체육관련시설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교통부는 기차역이나 공항,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응급 의료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비

사람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

생술이 실시되면 소생확률이 증가한다. 초등학교생이 심정지 환자를 구한 한 예로 하나의 미담(美談)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응급처치는 환자가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의 신고와 응급처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사람의 뇌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4~6분이 지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만 뇌사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관서 등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체계의 확충은 국가안보, 민생치안, 소방업무 등과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해에 인명소생이 가

치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편입시켜 어렸을 때부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기술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119구급대 31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당지역 소방서에 문의 및 신청을 하게 되면 응급구조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폐소생술을 배워둔다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또 한 번의 5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19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고 구급차가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5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생명을 소생케 하는 5분(分) 심폐소생술이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북부소방서>

노인 교통사고 방지, 양보·배려하는 습관부터

얼마 전 건물목을 건너던 중 거친 클랙스 소리가 귀청을 찢는듯했다. 돌아보니 한 할아버지가 건물목이 아닌데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도로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셨다. 급정거한 차들이 사고가 날 뻔했으니 화도 나고, 할아버지더러 빨리 가시라는 듯 뺑뺑거렸던 것 같다. 노약자의 행동은 본인 중심 성향이 강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으며 사고 위험성 그 위험에서 피하는 행동이 아니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보행속도가 떨어져 도로

를 횡단할 수 있는 육교나 지하도 이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노인들이 이 같은 습성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 줄 줄 아는 운전습관이면 노인 교통사고가 많지 않을 것이다. 성질 급한 우리나라 운전자가 이다 보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지각능력이 떨어지기 전인 50대 전후반에 사회복지와 실버 안전 차원에서 국가가 미리 교통사고와 대체법 등을 집중 교육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은채·광주시 광안구 북동동

無等鼓

스포츠 인구가 급증하고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으려는 도시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스포츠 마케팅'이다.

다. 국제 무대에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한국 도시들간 각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상당수 국가는 중앙정부가 전면 나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올림픽을 개최한 중국 베이징과 선전(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러시아의 모스크바(2013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카잔(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소치(2014년 동계올림픽)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일체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주는 그동안 스포츠 마케팅에서 다른 국내 대도시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 2년 전 처음으로 유치에 나선 국제종합경기대회가 하계 유니버시아드였다. '오일 달러'를 앞세운 러시아 카잔에 한 차례 고배를 마시

기도 했지만 다채롭지 못한 두 번째 도전에서 캐나다의 에드먼턴을 따돌리고 2015년 대회 개최를 확정지었다. 그동안 일부 부정적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어렵사리 대회를 유치한 만큼 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

스포츠마케팅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